

靑 '6자' vs 한국당 '1대1'... 회담형식 놓고 '핑퐁게임'

청와대 “여야정협의체 5당이 기본 기존에 했던 약속 지켜지길 바래”

한국당 “민생논의, 영수회담 목적 다른 당과도 ‘단독회담’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제1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형식’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1대1 회담(대통령-한국당 대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회담 형식 줄다리기에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5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기본”이라며 “여야정협의체는 5당이 함께 합의했

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만날 수 있길 희망하는 바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여야정협의체 관련) 최소한의 신뢰, 최소한의 약속 문제”라면서 “굉장히 어렵게 5당이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기존에 어렵게 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렸다. 즉 여야정협의체는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1대1 회담’을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청와대는) 무조건 여야대표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듣고 진지하게 대안을 논의하는 게 영수회담의 목적이 돼야 한다. 우르르 모여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면서 “한국당만 단독회담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당과도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차기 대권주자인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통해 ‘미래권력 위상’을 확실히 각인하고 싶은 것 아닌가 싶다”며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황 대표에게 몰릴 시선은 다른 대표들에게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6자 회담(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이 진정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황 대표도 얘기했지만 필요하다면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 대표들과도 단독회담을 진행하는 게 야당의 목소리를 더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국당의 1대1 회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대통령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양보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본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日, 韓·中에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요구

수산물 안전체계 정비... 잠재분쟁 없애야

日 “일본의 입장 어려워 졌다” 호소



지난달 2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수산물 수입금지분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국제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제안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DSB 상소 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DSB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 여만의 최종 결론이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무역제한 위반으로 봤다. 원심과 달리 상

소심(2심·최종심)은 “1심이 자연방사능 수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수입금지조치를 ‘합치’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극적 승소했다.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분쟁 당사국에서 공식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주요 20개국(G20) 농업담당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대신은 당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와 관련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편집인협회 토론회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국무총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오신환 당선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내용을 통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3대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를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는 소속 현역 의원 24명 중 해외출장 중인 정병국·신용현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부재자 투표로 참여했다. 오 의원 득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 24명 중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 프로필

오신환 (48) 서울 출생

- 서울 당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 서울시의원
-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
- 19·20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출신이 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당 출신 최소 5명 이상인 오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베트남 등 24개국에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24개 개발도상국에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KOPIA 센터는 2009년 8월 5일 베트남

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KOPIA 사업은 농업기술 공유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로 협력 대상 나라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연구원 총 1182명을

농진청, KOPIA 10주년 맞아 개발도상국 농촌 소득증대 기여

우리나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 785명은 현지 공무원, 연구원, 농업인 등 7만 9115명의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각 나라 여건에 따른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30~40%까지 높일 수 있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수부, 비축 수산물 1만1659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등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26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1만1659톤을 방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9403톤, 고등어 1012톤, 오징어 524톤, 갈치 616톤, 참조기 104톤이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배정된 후 남은 양은 도매 시장 또는 전자입찰(B2B)에 배정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시장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용 기자